

## 혐오와 포용 사이\*

: 『로스트 케어』와 『70세 사망법안, 가결』을 중심으로

이 승 진

(건국대학교 조교수)

### ◆ 국문초록

2012년과 2013년에 연이어 등장한 가키야 미우(垣谷美雨)의 『70세 사망법안, 가결』과 하마나카 아키(葉真中顯)의 『로스트 케어』가 그리는 세상은 초고령사회가 빚어낸 수많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노령사회를 향한 불온한 욕망이 최근 일본 문화 전반에서 분출하고 있는 현실은, 기형적인 인구 구조와 소득 불균형, 그리고 여기에서 기인하는 세대·계층 갈등이 이미 심각한 문제로 일본에서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해준다. 가키야 미우가 『70세 사망법안, 가결』에서 그린 세계는 이러한 현실을 예리하게 포착하면서도 ‘연민’과 ‘희망’이 작동하는 미래를 갈구한다. 일정 나이에 되면 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상이, 각종 인물들의 각성과 이해를 불러오는 도구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작품은 동화적이나 사회 전반에 걸친 ‘공동체’의 복구로 시종일관 나아간다. 반면 하마나카 아키가 『로스트 케어』에서 그린 세계는, ‘선의’와 ‘연민’이 ‘폭력’으로 파급되는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시스템의 결함과 그 개선 불가능성 앞에서 직면할 윤리의 ‘부조리’함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주제어 : 로스트 케어, 70세 사망법안 가결, 초고령사회, 혐오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KU연구전임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과제임.

## I. 머리말

2016년 일본 사가미하라(相模原)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살상 사건은 일본사회 저변에 깔린 ‘혐오(嫌惡)’ 의식의 민낯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장애인은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고, 불행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범인의 발언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과 ‘배제’의 시각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다. 사회 일각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는 2022년 제75회 칸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Un Certain Regard)’ 부문에 초청되고, ‘특별언급(Mention Spéciale)’<sup>1)</sup>을 수상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하야카와 치에(早川千絵)의 『플랜 75』 전경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작품은 이 ‘장애인’ 살상 사건을 추동한 편견이 ‘후기고령자’ 전반을 향한 인식으로 확산해버린 일본의 디스토피아적 근미래를 그리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배제’의 분위기,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적 편견을 그대로 ‘내면화’해버린, 영화 속 수많은 약자의 모습은 쓸쓸하나, 매우 현실적이다.

일본에서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동반한 개호(介護) 문제를 다룬 문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전후 ‘경제대국’의 신화가 끝을 향해 가던 1980·90년대 무렵이었다. 버블경제의 붕괴는 “정규직 남편과 비정규직 아내라는 표준적인 가족 모델의 해체”(中西新太郎 2005:28)를 가져오고, 이는 곧 전통적인 가족 모델에 심각한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는 그의 저서에서 1990년 이후 일본사회의 특징을 “리스크의 개인화”라는 표현으로 규정한다. 일본이 고도성장을 더해가던 시기에는 “리스크에 휩쓸릴 것 같게 되었을 때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한 리스크가 발생한

1) 그해의 최우수 장편 신인 감독에게 주어지는 황금카메라상 부문의 차점작에 수여하는 상이다. 비록 차점작에 머물렀으나, 일본에서는 1997년 가와세 나옴이(河瀬直美)가 『수자쿠』(萌の朱雀)로 황금카메라상을 수상한 이후 25년 만에 거둔 성과로 화제를 끌었다.

후 도움(care)을 기대할 수 있는 중간 집단이 존재”(2010:39)했으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가족과 기업이라는 중간 집단이 오히려 리스크의 본진이 되어버렸다는 분석이었다.

일본 개호소설의 효시로 평가받는 사에 슈이치(佐江衆一, 1934~2020)가 이 무렵 발표한 『돌봄살인』(老熟家族, 1985)과 『황락』(黃落, 1995)은 이 같은 시대 변화를 여실히 반영한 작품이었다. 집단에서 개인으로 리스크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출현한 두 작품은, 모두 치매 노인을 구성원으로 둔 ‘집’의 위기를 다루며 개호 문제가 이내 사회 시스템 전반의 결함 문제로 옮겨갈 것을 은연중에 시사한다. 실제로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을 때 그 국가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일본은 2005년에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서고, 2023년 조사에서 29.1%에 달할 만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인구 구조의 왜곡을 마주한 지 오래이다. 특히 ‘단카이(団塊)세대’<sup>2)</sup>의 은퇴가 가시화된 2007년 무렵부터는 노령사회라는 ‘집’이 공적 제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위기감이 계층 격차와 세대 갈등, 가족 붕괴의 심화라는 현실과 맞물려 각종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개호소설의 질감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한다.

2012년과 2013년에 연이어 발간된 가키야 미우(垣谷美雨, 1959~)의 『70세 사망법안, 가결』과 하마나카 아키(葉真中顯, 1976~)의 『로스트 케어』는 이 같은 맥락에서 탄생한 작품이었다. 두 작품이 상정하고 있는 세상은 초고령사회가 빚어낸 수많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전자가 70살이 되면 모두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섬뜩한 제안으로 현실을 폭로한 후 다양한 삶의 단면들이 결국 ‘포용’을 통해 이 문제에 대면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파멸’이 때로는 ‘포용’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도발적인 질문으로 이 어둡고 암울한 전경을 우리 앞에 끝없이 펼쳐 놓는다. 공교롭게도 『로스트 케어』가 내던진 윤리적 파국은 앞

2) 1947년부터 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매년 260만 명이 넘는 신생아가 이 시기에 태어났다.

서 언급한 사가미하라 장애인 살상 사건에서 거의 그대로 재현된다. 나아가 이 사건의 충격에서 탄생한 『플랜 75』<sup>3)</sup>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가 죽음을 강요당하는, 즉 『70세 사망법안, 가결』에서 결국 부결된 법안이 ‘선택’이라는 허울을 명분 삼아, ‘통과’되어 버린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의 처참한 암부(暗部)가, 현실과 문학을 오가며 유사한 패턴 속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두 작품이 담고 있는 디스토피아적 상상이 향후 일본 노인 문학의 뚜렷한 줄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작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이들 작품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매우 부족했다. 가키야 미우의 『70세 사망법안, 가결』을 “고령자의 의료·건강 및 간호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이수빈 2021:124)의 문학적 표출에 주목하여 분석한 사례와,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기반한 청년세대의 감각 경험과 감정을 결부지어 청년 캐릭터”(신현선 2022:291)에 주목해 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 1979) 작품 속 등장인물을 덧대어 논한 연구를 제외하면, 간호소설의 한 계보로서 한정된 조명만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로스트 케어』와 『70세 사망법안, 가결』을 초고령사회 속 노인을 향한 ‘혐오와 연민’, ‘혐오와 지성’이 교차하는 양상에 주목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일본의 노인 소설에서 범람하고 있는 디스토피아적 전경의 일맥을 이들 작품에 천착해 파헤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내 왕성하게 제기될 문학적 질문의 원초성을 탐색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3) 하야카와 치에는 여러 인터뷰에서, 사가미하라 장애인 살상 사건에서 받은 충격이 『플랜 75』의 주요 창작 동기였음을 밝힌 바 있다.

## II. ‘혐노(嫌老)’의 시대

2024년 9월 4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발표한다.<sup>4)</sup> 발표의 골자는 크게, 모수개혁(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을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의 차등 적용,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연금 체계의 다층화로 나눌 수 있다. 이 발표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크게 끈 항목은 보험료율의 인상 폭이었다. 1998년 9%로 변경한 후 약 26년간 유지되었던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은, 당장 내야 할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사실보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한국사회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상황임을 말해주는 점에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논란을 재차 불러온다. 이를 의식한 타인지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한다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방안과 함께,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율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위의 발표에 포함한다. 그렇지 않아도 급격하게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sup>5)</sup>,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전반적인 불신으로 번져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이 같은 모습이 가리키는 것은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눈앞에 둔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이 지금 직면해 있는 위기는 일본사회가 일찍부터 겪어온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이 2024년 7월 1일에 발행한 보고서

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010&tag=&nPage=3](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010&tag=&nPage=3) 참조.

5) 2024년 7월 11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62명으로, 처음으로 1000만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19.51%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가까운 시일에 한국이 ‘초고령 사회’(20%)로 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_MSTR\\_000000000008&nttId=110835](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_MSTR_000000000008&nttId=110835) 참조.



2000년대 초반 일본 정부가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안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을 서두른 이유는, 2007년부터 시작될 ‘단카이세대’의 퇴직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충격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더불어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이입이 ‘종신고용제’라는 일본 특유의 고용 형태에 균열이 가하고,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한 현황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공적 연금은 정규직 노동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후생(厚生)연금과,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비롯한 20세부터 59세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연금으로 나뉜다. 전자가 높은 보험료와 긴 가입 기간이라는 조건에서 탄탄한 기금 규모와 노후 보장의 틀을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에 불규칙한 가입 기간 탓에 기금 운용과 연금 지급 액수 모두에서 태생적인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sup>7)</sup> 따라서 2004년 일본이 착수한 연금 개혁은 이 같은 비대칭 개선에 초점을 맞춰 5%에 가까운 보험료율을 가파르게 상향하고, 후생연금 가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sup>8)</sup> 이뿐만 아니라 ‘자동조정장치’의 일본 버전인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マクロ経済スライド)’ 도입을 통해, 좋은 조건에서 가입한 노령인구의 연금 수령액을 일부 억제하는 방안까지 ‘한시적’이라는 명목하에 관철한다. 이른바 ‘연금 100년 안심 플랜(年金100年安心プラン)’이라는 제도혁신의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최근 ‘100년 안심 플랜’은 다양한 의문에 직면해 있다. 자산운용업체 머서(Mercer)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CFA)가 함께 평가한 2023년 글로벌 연금 지수에 따르면<sup>9)</sup>, 대대적인 연금 개혁이 완수된 지

7) 후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직장이 절반(현행 약 9.15%)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의 경우 2024년 현재 1만 6980엔을 가입자가 매월 정액으로 납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8) 일본에서는 8만 8천엔 이상의 급여를 받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후생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는데, 2022년 종업원 101인 이상 기업에서, 2024년 10월에는 51인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고, 현재 50인 이하의 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年金財政検証 制度改正の論点』, 『読売新聞』, 2024.07.30.)

불과 7년이 지났음에도 일본은 조사 대상 46개국 중 30위로 적정성(十分性, 59.2점), 지속가능성(持続性, 46.5점), 운용관리(健全性, 65.6점)를 종합한 총지수 56.3점에, 등급 C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일본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재차 심화하고 있고<sup>10)</sup>, 그로 인해 노령인구 증가에 가속도가 붙음으로써, 인구 구조의 기형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40년을 향해 가고 있는 경제 침체로 인해, 임금과 상품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디플레이션의 그늘이 여전히 일본을 드리우고 있고, 공교롭게도 ‘100년 노후 보장’이라는 대의로 실시된 연금 개혁이 ‘더 내고 덜 받는’, 즉 일하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소비 여력을 모두 감소시켜 버린 모습도 이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쉽게 해답을 찾기 힘든 시스템적 결함에 일본은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위기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연금 개혁 논의는 일본사회 일각에 더욱 짙은 좌절감을 불러일으킨다. 제도 설계에 대한 논의가 재차 테이블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젊은 세대에게 ‘노후 보장’이 신기루처럼 인식될 수 있음에도, 2024년 8월 21일자 요미우리신문 기사<sup>11)</sup>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세력은 당장 내년 시행할 연금개혁안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기사를 살펴보면 그 방향은 크게 둘로, 먼저 후생연금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단기 노동자를 국민연금에서 옮겨 오게 하고, 기금 고갈 속도가 심각한 국민

9) <https://www.mercer.com/ja-jp/about/newsroom/global-pension-index/> 참조.

10)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연금 개혁이 시작된 2004년 1.29에서, 들쭉날쭉하면서도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2015년에 1.45까지 증가하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고, 2023년에는 1.20이라는 1947년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geppo/nengai23/dl/gaikyouR5.pdf> 참조.

11) 「[スキャナー] 政府・与党 年金改革 反発警戒 衆院選を意欲 慎重議論」, 『読売新聞』, 2024.08.21.

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컨대 보험료의 의무 납부 기간을 연장하거나 후생연금의 기금 중 일부를 떼어 주는 방법까지 고려되고 있다. 또한 후생연금의 기금 안정성이 일정 부분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マクロ経済スライド)’를 지속함으로써 연금 지급액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쪽에서 연금 재원을 확대하고 다른 한쪽에서 연금 지출을 줄이는 ‘동어반복’적인 제안이 ‘100년 플랜’이 가동된 지 불과 20년 만에 재등장한 것으로, 결국 모두가 가난해질 뿐이라는 불만이 일본사회에서 커지는 것은 더 이상 막기 어려워 보인다.

사회 제도가 내비치는 심각한 결함은 필연적으로 불온한 욕망을 불러온다. 여기에서 최근 일본사회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후기고령자(後期高齢者)’와 ‘노해(老害)’라는 표현을 떠올려보자. 일본에서 후기고령자라는 명칭이 미디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무렵이었다.<sup>12)</sup> 전후 일본이 줄기차게 구축해 온 경제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고민이 본격화한 시기에 이 단어는 출현한다.

노인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 근저에는 노인의 존재가치를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존재로 간주하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쇠약하고 의존적인 신체에 자기주장만 일삼는 형태로 소비되는 노인의 이미지는 현대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전형이다.

(이윤주 2022:285)

12) 일본에서 판매 부수 1위부터 3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일간지를 살펴보면, 요미우리신문이 1986년의 기사(「西暦2021年 4人に1人お年寄りに 人口ピーク 27年後 1億3600万」 『読売新聞』 1986.08.23.)에서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하였고, 1987년의 아사히신문 기사(「待機(輝け)シルバー 高齢化社会への対応:4」 『朝日新聞』 1987.10.08.)와 1990년의 마이니치 신문 기사(「(特集)対談=風向き定まらぬ 「神風予算」」 『毎日新聞』 1990.01.23.)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65세 이후의 고령자를 아직 일할 여력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는 발상은, 특정 그룹을 겨냥한 ‘혐오’의 범주화로 나아가기 쉽다. 실제 일본 정부는 2013년 ‘고령자취업확보’라는 명목하에 60세에서 65세로, 2020년에는 70세로까지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왔는데, 마치 이와 보조를 맞추듯 “하류노인(下流老人), 과로노인(過勞老人), 표류노인(漂流老人), 간병살인, 노후파산, 고독사, 고립사, 구매난민(買い物難民), 요시와라연금족(吉原年金族), 약육노식(若肉老食) 등과 같은 부정적이거나 공포의 의미가 내포된 신조어”(신소정 2022:190)가 범람하게 된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더불어 일본사회의 취약성이 부각되는 국면에서 ‘혐오’는 확장을 거듭한다. 가령 ‘노해’는 이를 잘 보여주는 표현으로, 본래 나이를 먹어 물러날 때가 되었음에도 힘 있는 자리에 머물며 젊은 세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의미로 1960·70년대부터 쓰여온 이 단어는, 2000년대에 들어 몰상식한 노인의 행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임새를 급속히 넓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하에서 내면화된 능력주의(ableism)와 ‘자기책임(自己責任)’론뿐만 아니라 복지수혜의 세대 간 격차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김지영 2023:33-34)가 예각화되는 현실에서, 지금은 ‘장수=노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아마도 이 같은 모습이 생산성을 상실한 ‘잉여적 존재’로 노인을 부조한 후, 사회 시스템의 위기를 이들을 향한 ‘폭력’으로 그린 『로스트 케어』와 『70세 사망법안, 가결』이 출현한 배경으로, 이처럼 초고령사회라는 디스토피아적 전경 앞에 놓인 일본의 현실을 두 작품은 조금은 다른 결로 우리 앞에 풀어 놓는다.

### Ⅲ. 현실의 디스토피아, 『로스트 케어』

2009년 초등학교 장기(將棋) 천재들의 이야기를 그린 아동문학 『라이벌(ライバル)』을 통해 작가적 출발을 알린 하마나가 아키는, 2013년

노인 개호를 소재로 한 『로스트 케어』로 제16회 ‘일본미스테리문학대상(日本ミステリー文学大賞)’의 신인상 부문을 수상하며 추리소설 작가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수상 소감에서 작가는 “현실의 사회문제를 모티프로, 선악(善惡)과 애증(愛憎)이라는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주제”<sup>13)</sup>를 그리고 싶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하마나카의 이 같은 의도는 “두말할 필요 없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걸작이라는 상찬을 끌어내며, 심사위원 4인의 만장일치 선고(選考)로 결실을 맺게 된다.

작품은 3명의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한다. 검사 오토모 히데키와 그의 고등학교 농구부 시절부터의 친구로 지금은 ‘포레스트’라는 개호비즈니스 회사의 본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쿠마 고이치로, 그리고 ‘포레스트’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방문 개호사무소에서 실제 몸이 불편한 노인의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바 무넨오리가 그들이다. 오토모의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인에 소싯적 무역업으로 성공을 거둔 부유한 노인이나, 아내가 세상을 등지고 움직임이 불편해지자, 주기적으로 근무지를 바꿔야 하는 아들에게 의지할 수 없어 적합한 요양 시설을 물색하기로 결심한다. 이에 오토모는 개호업에 종사하는 친구 사쿠마에게 시설 소개를 부탁하는데, “돈만 있으면 유료 실버타운이 최고”라는 추천을 따라, 입소 비용이 3억 엔이나 되는 ‘포레스트 가든’에 아버지를 모시게 된다.

오토모의 아버지가 여생을 의탁한 ‘포레스트 가든’이 모든 조건에서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천국이라면, 시바가 근무하고 있는 ‘야가 케어 센터’의 현실은 지옥과 같다. 가족의 애증과 경제적 궁핍, 현실과 맞지 않는 개호보험제도의 부조리함이 간병 대상자와 그 가족, 돌봄 근무자 모두를 짓누르는 현장을, 그 정반대 조건을 지닌 ‘포레스트 가든’의 모습과 대비시키며 작품은 이야기를 연다. 이처럼 작품 초반에 보이는 명확한 구도는 일본 복지 시스템의 제도적 결함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가

13) [https://kobun.or.jp/mistery\\_new/prize16/](https://kobun.or.jp/mistery_new/prize16/) 참조.

령 아버지와 ‘포레스트 가든’을 둘러본 후 오토모와 사쿠마는 오랜만에 회포를 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사쿠마는 노인의 돌봄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정부가 6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호보험의 실상을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한다.

“안타깝게도 개호보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보험이 아니야. 개호 보험으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뉘었지. 살 사람과 살지 못할 사람.”  
[...] “그때까지 뒤섞였던, 의학적 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와 생활을 돕는 일을 주로 하는 ‘개호’를 분리해 사회보장이라는 대의명분을 얻어 국민들로부터 개호보험료를 징수하자. 이렇게 모은 돈을 밑천으로 개호를 시장원리에 따라 자립시킨다. 공무원들은 그런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갑작스럽게 도우미 같은 자격이 정비되고 우리 같은 영리기업의 진입이 촉진되었지. 노인복지를 비즈니스로 삼아 민간에게 아웃소싱 하는 것. 그게 개호보험의 역할이야.”

(하마나카 아키 지음, 권영일 옮김 2016:55-56)<sup>14)</sup>

일본의 개호보험이 정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로 작동하며, 그 표면의 목적과 달리 현실에서는 살지 못할 자에게 여러 폐해를 가져오기 쉬운 구조라는 사실을 사쿠마는 완전히 통찰하고 있다. 하지만 부유한 집에서 자라 부모의 요양 의무에서 자유롭고, 안정된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오토모에게 이 같은 실상은 좀처럼 와닿지 않는다. 시스템의 결함을 ‘개호비즈니스’의 기회로 보고 있는 친구에게 묘한 위화감을 가지면서도 고가의 요양 시설을 무리 없이 선택하는 한편, 고마움에 식사 자리를 대접하겠다는 친구의 제안에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식비는 따로 결제하는, 요컨대 신념은 뚜렷하나 사회의 일면만을 경험해 온 인물로 시종일관 작품에서 그려질 뿐이다. 이렇게 격차사회가 가져온 현실과 제도적 결함이 노인 시설에서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단조롭게 폭

---

14) 『로스트 케어』는 2016년 1월 15일 출판사 현대문학에서 번역 출간하였다. 이하 본고의 인용문은 해당 번역본을 따른다.

로하며 나아갈 듯한 서사는, 그러나 사쿠마의 몰락과 함께 급격한 변주를 맞게 된다.

오토모가 ‘성선설’을 믿는 고지식하며 이상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사쿠마는 친구의 이 같은 속성을 ‘위선’으로 치부하는 현실주의자로 작품에서 조형된다. 예컨대 학창 시절 농구부가 원정을 갈 때마다 지지르던 ‘무임승차’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오토모가 주장한 무렵부터, 사쿠마는 깊은 적의를 품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친구의 제안에 찬성해야 했던 그에게 오토모는 묘한 열등감을 자극하는 존재일 뿐이다. 대다수 사람이 종종 그릇됨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선택’받은 오토모의 품위는 처음부터 그에게 위선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오래된 친구임에도 일부러 가장 비싼 개호 시설을 소개하고, 자신의 회사가 각종 비리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는 검사 친구가 보란 듯이 ‘고객 데이터’를 훔쳐 보이스피싱 사업에 몸을 담는 선택조차 그는 주저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번 돈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가, 가식적인 위선보다 훨씬 낫다는 사고 회로 속에서, 사쿠마는 작품에서 명확하게 ‘악’을 표상하는 인물로 오토모의 대극에 위치하게 된다.

그런데 사쿠마가 빼낸 ‘고객 데이터’ 중 일부가 다른 범죄자를 거쳐 오토모의 손에 들어가면서 이야기는 시바의 서사로 초점을 급속히 옮겨 간다. 사쿠마의 데이터를 우연히 살피던 오토모가 동료의 도움으로 자신의 관할 내 ‘야가 케어센터’의 돌봄 대상 노인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해할 수 없이 높을 뿐 아니라, 사망 추정 시간까지 비정상적으로 몰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바 무네노리라는 존재가 이야기 안에서 빠르게 떠오르면서, 이상과 현실, 선과 악의 단선적인 대치 구도가 아닌 그 ‘모호함’, 그 ‘경계’의 서사로 작품은 달려가기 시작한다.

다시 소설의 초반부로 돌아가 보자. 작품은 일본의 ‘사회파추리소설’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이며 출발한다. 사건 내지는 범인의 윤곽을 이야

기의 초·중반부에 노출한 후, 그 범행이 일어난 맥락을 조명함으로써, ‘누가’가 아닌 ‘왜’에 시선이 모이는 구조를 『로스트 케어』는 충실히 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롤로그에서 한 범죄자가 판결을 받는 상황에 대해, 주요 등장인물 3인에 더해 범죄자인 ‘그’,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유족 중 한 명인 하네다 요코의 감회를 차례대로 배치함으로써 사건과 주요 등장인물의 정보를 일찌감치 제공한다. 그리고 ‘그’를 제외한 등장인물의 삶을 ‘크로스 커팅(cross cutting)’<sup>15)</sup>하며 서사를 진행하는데, 이야기의 중반까지 개호현장의 현실을 충실히 보여주는 역할에 그칠 듯 보였던 시바의 존재는, 오쿠마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작품 전체의 중심점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구멍 밑바닥에서 애정과 부담의 틈새에서 허우적거리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죠. 게다가 세상은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하지도 않고 상상력이 결여된 양식을 내세우며 그런 사람들을 더욱 궁지로 몰았습니다.

‘로스트 케어’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 수단이죠.

제가 일찍이 누군가에게 바랐던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마나카 아키 지음, 권영일 옮김 2016:343)

앞서 오토모가 발견한 상황 증거가 준 확신과 별개로, 뚜렷한 혐의 입증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고민하던 검경을 비롯기라도 하듯, 시바는 체포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한다. 무려 43명에 달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한 이후에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를 기록한 범죄의 시인이었다. 그런데 마치

15) 1910년대 미국 할리우드 영화감독 D.W. 그리피스(David Wark Griffith, 1875-1948)가 처음 사용된 기법으로, 각각의 이야기가 평행하여 흐르다가 때때로 교차한 후 마지막에 만나는 형태의 서사 구조를 가리킨다. 이후 수많은 영화가 이 기법을 채택하였고, 많은 현대 소설에서도 그 모습은 발견된다. 일본에서 이 기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작가 중 하나가 무라카미 하루키로, 『1Q84』를 포함한 수많은 작품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일어날 일을 마주하고 있을 뿐인 듯한 시바의 차분한 태도는 오토모를 서서히 뒤흔든다. 죄의식을 일깨우는 것, 법 제도라는 ‘사회계약설’을 근간으로 한 처벌 이전에, “직관적,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영역”을 범 죄자로 하여금 깨닫게 함으로써 진정한 ‘교정’을 수행하는 것을 ‘사명’이라 믿어온 오토모가 처음으로 직면한 내적 동요였다. 친구인 사쿠마 류(類)의, 다시 말해 ‘웁고 그름’의 잣대가 뚜렷이 작동할 수 있는 세계관을 대할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혼란을, 역설적이게도 전후 최대의 연쇄 살인범의 취조 과정에서 그는 겪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 『마태오의 복음서』 제7장 12절

(하마나카 아키 지음, 권영일 옮김 2016:7)

이처럼 시바의 등장, 그리고 그가 던지는 도발적인 물음은 오토모를 심연에서부터 흔들기 시작한다. 위의 “법과 윤리 모두에 통용되는 근본 원칙이라서 골든 룰, 즉 황금룰”이라 불리는 원칙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시바의 동기는, ‘선의’에 기반하고 있기에 교정할 여지가 극히 희박하다. 사건 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범행이 발각될 위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살해해야 했던 센터의 동료 한 사람을 제외한 희생자 모두가 개호에 짓눌린 당사자와 그 가족들로, 시바가 스스로 ‘믿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에 나섰다라는 사실만이 명확해진다. 동시에 사회적 사각지대에 갇힌 이들에게 ‘존엄사’ 내지는 ‘안락사’를 허용함이 ‘악’인가라는 오래된 질문 또한 ‘구원’과 ‘폭력’ 사이를 오가며 떠오르기 시작한다. 결국 치매와 중증 장애를 지닌 이와 그 가족들을 다가오는 불행에서 ‘구원’했다는 시바의 논리 앞에서, 오토모는 ‘살인은 악이다’라는 허울 뿐인 수사(修辭) 외에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아마도 이것이 기독교인에 성선설을 믿고, 게다가 엄격한 직업윤리를

지닌 인물로 이 캐릭터를 조형한 이유로, 시바의 ‘선함’에 담긴 진실을 직관적으로 깨닫는 존재이기에, 오토모는 자신의 추궁이 처음으로 법 논리에만 머무를 것이라는 무력감을 맛보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시바의 ‘선함’ 의도는 윤리적 속죄를 당당하게 거부한 채 재판장을 넘어 사회로 파급하게 된다.

임종을 앞두고 자기 결정을 중시하는 편인 사람들로부터 안락사와 존엄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대해 안락사 긍정론의 배후에는 ‘남에게 부담을 지우는 인간은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있어 고령자나 장애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가치관과 가치관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논의를 피해 멀리 후회할 수는 없다는 생각만은 다들 공유했다.

그런 세상의 흐름이 오토모로 하여금 시바의 진짜 목적을 깨닫게 해주었다.

(하마나카 아키 지음, 권영일 옮김 2016:360)

때때로 ‘선의’는 수많은 폭력을 불러오기도 한다. 시바가 제시한 황금률의 논리는, 일차적으로는 일본의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많은 약자의 고통을 초래할 것임을 폭로하며, 심층에서는 종교로 상징되는 코스모스적 세계관이 어떻게 지금 시대에 폭력의 원리로 전이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외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형 판결 이후 시바를 면회 간 오토모가 그의 ‘선의’를 마지막까지 부정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연 사회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시바의 ‘상상’은, 작품 속에서 안락사 합법화와 같은 논쟁으로 손쉽게 번져간다. “시장에서 임금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게 하며, 실제로 이들의 생존을 가족에서 전가”(나영정 2023:74)하는 상황은, 이렇게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노인이 죽음을 ‘선택’받게 하는 사회에서, 특정 연령 이상에게 집

단 죽음을 ‘강요’하는 비등점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한다. 『로스트 케어』가 “이제 곧 밤이 올 것이다”라는 오토모의 암울한 전망으로 끝을 맺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현실의 디스토피아를 그린 작품의 예감처럼, 『70세 사망법안, 가결』은 죽음이 ‘선택’을 넘어 누구에게나 ‘강요’되려는 세계, 즉 일본의 ‘밤’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현실을 그리며 이야기를 출발한다.

#### IV. 혐오와 희망 사이, 『70세 사망법안, 가결』

가키야 미우는 2018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사회에 대한 분노가 소설을 쓰는 원동력”<sup>16)</sup>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년간 소프트웨어로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아온 그녀는, 2005년 발간한 『토네이도 걸(竜巻ガール)』로 같은 해 제27회 소설추리신인상(小説推理新人賞)을 수상하며 늦은 전업 작가의 길에 들어선다. 같은 방송에서 작가는 추리소설 장르로 출발한 이유를 “상을 타기 쉽다고 판단했고, 작가가 된 다음에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데뷔작 이후에는 “결혼, 출산, 노후 문제, 간병 등 매우 일상적이면서도 복잡한 사회문제를 날카로운 시선과 생생한 인물 묘사로 조명”(이윤주 2023:175)하며, “사회에 대한 분노”를 문학적 물음으로 표출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그녀가 2012년 세상에 내놓은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의 시작은 제목만큼이나 충격적이다.

70세 사망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이 나라 국적을 지닌 자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

16) [https://www.youtube.com/watch?v=\\_6O7ByHaSuw](https://www.youtube.com/watch?v=_6O7ByHaSuw) 참조

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예외는 왕족뿐이다.

[...] 지난 10년간 이 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여파로 연금제도가 붕괴되었으며, 국민의료보험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다.

(가키야 미우 지음, 김난주 옮김 2018:9)<sup>17)</sup>

불과 2년 후부터 일본에서 70세가 되면 한 달 이내에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70세 사망법안, 가결』의 가상 세계는, 언뜻 보면 『로스트 케어』의 암울한 전망이 실현된 ‘밤’을 연상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실제 작품의 서사는 동화적이라고 할 만큼 연민과 포용이 충만한 결론을 향해 일관되게 나아간다. 그렇다면 “연금제도가 붕괴되었으며, 국민 의료보험이 바닥”을 드러낼 만큼 인구 기형화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 특정 연령 이상의 절멸에서 해법을 찾는 사회가, 정작 ‘절망’과는 거리가 있고 심지어는 해피엔딩으로 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로스트 케어』가 그린 세상이 암울한 전경으로 꼭 차 보인 이유는, 주된 서사가 애초부터 답을 찾기 힘든 ‘부조리’한 질문을 축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었다. 패트리샤 힐 콜리스(Patricia Hill Collins)와 시르마 빌게(Sirma Bilge)는 “사회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과 권력의 구성은 인종, 젠더, 계급 모두 사회를 나누는 하나의 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여러 축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2020:22)라고 상호교차성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로스트 케어』 속 희생자들 대부분은 ‘빈곤’과 고령에 찾아온 ‘장애’에 아울러 신음하는 존재들이었다. 이에 시바의 ‘해답’ 또한 명료했다. 차별이 중첩되어 어떤 존재를 향할 때 종종 죽음이 유일한 ‘구원’일 수 있다는, 질식할 것 같은 확고함이 작품 전반을 관통해 있던 것이다.

---

17) 『70세 사망법안, 가결』은 2018년 출판사 원쪽주머니가 한국에서 번역 출간하였다. 이하 본고의 인용문은 해당 번역본을 따른다.

물론 시바의 ‘선의(신념)’는 이론상으로는 생각보다 간단히 부정될 수도 있다. ‘차별’과 ‘배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거꾸로 이 ‘악의’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작동하는 세상이 있으면 된다. 하지만 전자는 인류의 이상(종교) 속에서만 존재해 온 유토피아적 공간이고, 후자는 ‘차별’과 ‘배제’가 애초부터 ‘나’를 제외한 대상을 향할 때 성립되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수많은 ‘나’의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성선설이 세계에 ‘악’이 존재함을 전제로 탄생한 개념인 것처럼, ‘차별’과 ‘배제’는 일상에 공평함이 부재하기에 일어나는 감정이다. 때문에 ‘빈곤한 노인’들이 안락사를 선택 ‘당하는’ 방식 즉 시바의 ‘해답’이 현실에서는 통용될 것이라는 예감을 『로스트 케어』는 칠혹 같은 ‘밤’으로 표현하며 끝을 맺어야 했다.

그런데 『70세 사망법안, 가결』은 이 섬뜩해 보이는 제안(죽음)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즉 현실에서 결코 실현되기 어려운 세계를 상정하며 출발한다. 선과 악의 길항은 작품 안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당장 2년 후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 중 상당수는 지금 태어날 세대보다는 긴 수명을 누린 존재일 뿐이다. 자신들을 향한 ‘차별’의 논리가 수많은 ‘나’에게 똑같이 적용될 세상에서, “70세 사망법안만큼 이 나라를 재기하게 해 주는 방법은 달리 없어 보인다”는 공리주의적 사고는 그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띤다.

나이가 『70세 사망법안, 가결』은 이 현실에 순응한 인간상을, 여유 있는 중산층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그려간다. 대기업 종사자인 남편 다카라다 시즈오와 전업주부 아내 도요코, 캥거루족에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는 아들 마사키와 노인 개호시설에서 비정규직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는 딸 모모코, 마지막으로 노령에 찾아온 질병으로 누워 생활하는 시어머니 기쿠노가 그들이다. ‘정규직 남편’과 ‘전업주부’라는 일본이 좋았던 시절의 중산층 모델의 자식들에게는 부모 세대가 누려온 삶이 요원하다. 가령 일류 대학을 어렵지 않게 나올 만큼 집안의 자라이었던 장손 마사키는 치열한 경쟁사회 속 인간관계를 못 이겨 누구나 선망하

는 직장을 별다른 고민 없이 그만둔다. 아버지 세대라면 좋은 대학을 나온 조건에서 한 번의 실패는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추락이겠지만, 지금의 세대에게 두 번째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계속되는 취업 실패 속에서 일류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이 직업 선택의 폭을 줄이는 ‘악순환’을 부르면서 마사키의 ‘쉼’은 끝날 기미 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백수인 마사키와 계약직 노동자인 모모코의 현실은, 부모 세대의 우산 아래에서 결코 ‘절망’으로 치닫지 않는다.

한편 도요코는 가부장적인 남편을 견디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존재이다. 경제적 이점을 위해 결정한 젊은 시절의 ‘합가’는, 홀로 남은 시어머니의 개호를 책임져야 하는 고된 삶을 그녀에게 안겨준다. 도움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남편과 아들은 얼굴조차 보기 힘들고, 딸은 어머니의 간병 부담에 눈을 감기 위해 독립을 선택한다. 개호 당사자인 시어머니는 다른 이에게 도움을 받기 싫다며 돌봄 요양사의 도움조차 거절하며, 시누이들은 2년 후 남겨질 유산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다.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방관한다는 점에서 도요코는 가족 안에서 고립된 섬처럼 존재한다. 그리고 ‘사망법안’으로 곧 죽을 자신을 가족조차 연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어머니 기쿠노 또한 사회적으로 완전히 폐기된 잔여물처럼 홀로 부유한다. 그저 현실의 울분을 정작 자신을 돌봐 주는 도요코를 향해 푸는 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이다. 우에노 지즈코(上野 千鶴子)는 일찍이 “복수의 차별이 그것을 성립시키는 복수의 문맥 속에서 뒤틀리거나, 갈등하거나, 하나의 차별이 다른 차별을 강화하거나 보상하거나 하는 복잡한 관계 속에 있는 차별”(1996:204)을 복합차별로 규정한 바 있는데, 작품 속 며느리 도요코와 시어머니 기쿠노는 자신들에게 향하는 중층의 차별을 서로에게 “강화하거나 보상하는” 바로 그 구도 속에 자리하게 된다.

하지만 서사는 남편이 ‘70세 사망법안’으로 앞으로 12년밖에 살지 못하게 되자, 안정적인 회사를 조기 은퇴하면서 변화를 맞기 시작한다. 도요코는 자신보다 3살 위인 남편의 이른 은퇴가, 함께 시어머니의 간병

을 완수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더불어 충실히 보내자는 제안이라고 착각해 오히려 환영한다. 그러나 퇴직한 남편은 자신과 아픈 어머니에게 세계 여행을 통보한 채 떠나버리고, 심지어 맡겨 두었던 경제권마저 일방적으로 회수해 간다. 결국 절망에 빠진 도요코는 인생 최대의 결정인 가출을 단행한다. 아내이자 엄마, 며느리인 존재가 갑작스럽게 부재하자 가족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가령 방에 틀어박혀 식사조차 같이 하지 않던 마사키는 할머니의 부름에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까지 떠맡는다. 그리고 같은 공간 아래에서 손자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기쿠노의 짜증과 고집은, 이내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도 향하게 된다. 한가롭게 세계 여행에 나선 남편, 어머니의 힘듦을 애써 외면한 딸, 이따금 찾아와 며느리에 대한 기쿠노의 불평에 맞장구를 쳐주던 시누이들 모두가, 도요코의 부재를 계기로 그동안 외면해 온 개호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이렇게 한 가족에게 심대한 균열을 가져온 ‘사망법안’은 사회에도 중요한 전환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 뭐 하나 보탬이 안 되는 신세를 졸업하면 70세가 넘어서도 살 수 있다는 이면 법안이 있다는 거야.”

“뭐?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사요는 증서를 받았대.”

[...]

“그래서, 그 증서라는 게 뭔데?”

“몇 살까지 살아도 된다고 쓰여 있는 증서라네. 거짓말 아니야. 마가이노 총리의 도장이 딱 찍혀 있는걸.”

(가키야 미우 지음, 김난주 옮김 2018:151-152)

‘연민’과 ‘지성’을 일깨움으로써 법안을 폐지하려는 호소가 일본의 ‘미래’라는 대의 아래 맥을 못 추는 상황에서, 노력자 사이에 예외 조항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번져간다. 이 소문은 마사키의 고등학교 동창으

로 지금은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지즈루가 퍼트린 것인데, 이 ‘이면 법안’에 희망을 건 노인들이 자산과 노동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 걸쳐 유행처럼 번져간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조건이, 계층의 사다리 위를 욱망하며 인구 기형화의 현실을 ‘적자생존’의 입장에서 방관해 온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행동에 나서도록 작동한 것이다. 인구 구조의 모순 속에서 젊은 세대가 정치적 변혁을 전혀 끌어낼 수 없었던 작품 속 답답한 현실에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이는 애초에 ‘사망법안’을 제안한 정부 당국의 숨은 의도이기도 했음을 이야기는 종반을 향하면서 서서히 드러낸다.

“그렇습니다. 70세 사망법안 덕분에 국민은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장기적인 시각에서 내세운 정책은 하나 같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쫓는 정책만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가키야 미우 지음, 김난주 옮김 2018:373)

이처럼 도요코의 부재로부터 한 가족 구성원의 개호 현실에 대한 자각이 시작된 것처럼, ‘사망법안’의 가결은 일본의 구조적 결함을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현실로 깨닫는 계기가 된다. 가진 자에게 예외 없을 뿐 아니라, 노후 자금이 걱정되어 ‘연금’ 개혁을 반대해 온 고령자로 하여금, 이 법안은 일본 앞에 놓인 과제의 실상을 한껏 일깨운다. 이미 수많은 시민의 의식과 행동에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소설의 말미는, 그런 의미에서 작품 시작의 섬뜩한 제안과는 더없이 멀리 떨어져 있다. 우에노 지즈코는 최근 내놓은 저서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 및 자본 배 시스템으로 ‘인간의 살림살이’에 녹아들 사회보장”(2024:844)을 제안한다. 복지 다원사회의 책임과 부담 나누기라는 과제를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와 가족의 ‘협’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그녀의 제안은, 『70세 사망법안, 가결』에서 실현되었거나 혹은 실현해 갈 모습과 맞닿아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을 향한 ‘차별’의 논리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

용될 세계라는, 실현되기 어려운 가설에서 작품이 출발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한가. 2023년 영화화된 『로스트 케어』 속 세계는 원작보다 더욱 피폐해 버린, 그리하여 검사역을 맡은 여주인공이 시바의 ‘사상’에 매몰된 듯한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인간의 폭력은 어디까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원작의 진중한 주제가 열린 만큼이나, 시바의 ‘상상’이 짙은 호소력으로 대중들을 매료하고 있는 것으로까지 보인다. 특히 작품 속 시바의 행동에 촉발이라도 된 듯 끔찍한 장애인 집단 살상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60세 이상의 노인을 무작위로 안락사시키는 세계를 묘사한 『노인이 없는 나라』(老人のいない国, 2019, 총 13화)와 ‘격차 문제’와 ‘혐로’ 의식이 가득한 『플랜 75』와 같은 작품이 연이어 출현하는 상황 또한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싣고 있다. 현실의 전망은 결코 밝아 보이지 않는다. 과연 ‘혐오’와 ‘포용’의 사이에서 향후 일본의 노인 문학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일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아주 가까운 시일에 우리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도요코 가족의 ‘연대’와 ‘회복’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시바의 ‘선의’가 집단적인 폭력의 도화선 터밋에서 멈추는 서사가 보다 현실감을 띠는 시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

## V. 맺음말

『70세 사망법안, 가결』과 『로스트 케어』가 연이어 출간된 2010년대는, 일본의 ‘단카이세대’가 모두 법적 은퇴 연령에 들어선 무렵이었다. 일본의 ‘경제신화’를 이끌며 패전의 잔해에서 나라를 재건한 이들은, 동시에 ‘연금제도’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세대이기도 했다. 예상 속도를 넘어서고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일본의 구조적 문제가, 노령층을 향한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경유하여, ‘혐오’라는 불온한 욕망으로 문화 텍스트

트 안에서 지금 구현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키야 미우가 『70세 사망법안, 가결』에서 그린 세계는 이러한 현실을 예리하게 포착하면서도 ‘연민’과 ‘희망’이 작동하는 미래를 갈구한다. 일정 나이에 되면 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설정이, 거꾸로 작중 인물들의 각성과 이해를 불러오는 도구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작품은 동화적이거나 사회 전반에 걸친 ‘공동체’의 복구로 시종일관 나아간다. 반면 하마나카 아키가 『로스트 케어』에서 그린 세계는, ‘선의’와 ‘연민’이 ‘폭력’이라는 행위로 파급되는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시스템의 결함과 그 개선 불가능성 앞에서 우리가 직면할 윤리의 ‘부조리’함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일본이 최근 발신하고 있는 이들 참여한 주제는, 곧 인류 전체가 맞닥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2023년 앵거스 윌킨스(Angus Wilkinson)가 선보인 단편 영화 「The Exit Plan」은 8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죽어야 하는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그 윤리적 의문을 정면에서 제기한다는 점에서 동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기후 위기와 그에 따른 자원 고갈이 전 지구적인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노인 혐오’가 보편적인 주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그런 의미에서 향후 일본의 노인 문학이 발신하는 주제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 참고문헌

- 가키야 미우·김난주 옮김(2018), 『70세 사망법안, 가결』, 왼쪽주머니.
- 김지영(2023), 「현대 일본의 혐오현상과 대항담론」, 『횡단인문학』 14, 17-66.
- 나영정(2023), 「혐오표현과 시설사회」, 『횡단인문학』 14, 67-83.
- 신소정(2022),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2020)에 그려진 초고령사회 일본과 노년의 삶」, 『日本研究』 94,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189-214.
- 신현선(2022), 「현대 일본 사회의 청년 캐릭터 고찰 - 가키야 미우(垣谷美雨), 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1(73)』,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89-306.
- 이수빈(2022), 「초고령사회와 가키야 미우(垣谷美雨)의 『70세 사망법안, 가결(70歳 死亡法案,可決)』—문학작품에 나타난 사회비용 절감 효과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65』,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121-142.
- 이윤주(2022), 「일본 대중문화에 투영된 초고령사회의 노인 인식」, 『日本語文學』 93, 한국일본어문화회, 283-299.
- 이윤주(2023), 「결혼 시장의 양극화, 솔로화 사회 - 가키야 미우(垣谷美雨)의 『うちの子が結婚しないので』에 투영된 결혼 시장-」, 『비교일본학 58』, 한양대학교 일본학 국제비교연구소, 173-188.
- 이재호·강영관·조운해(2024),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BOK이슈노트』제 2024-17호, 한국은행.
- 우에노 지즈코·조승미, 이혜진, 공영주 옮김(2024), 『돌봄의 사회학』, 오월의 봄.
- 야마다 마사히로·최기성 옮김(2010), 『희망격차사회』, 아침.
- 페트리샤 힐 콜리스, 시르마 빌게 저·이선진 옮김(2020), 『상호교차성』, 부산대학교 출판부.

하마나카 아키·권일영 옮김(2016), 『로스트 케어』, 현대문학.

井上 俊·上野 千鶴子·大澤 真幸·見田 宗介·吉見 俊哉 編(1996), 『差別と共生の社会学』, 岩波書店.

中西新太郎(2005), 「特集にあたって」, 『前夜』 4, 影書房.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2024.07.11.)

[https://www.mois.go.kr/fi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0835](https://www.mois.go.kr/fi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0835) (검색일: 2024.09.10.)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2024.09.0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010&tag=&nPage=3](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010&tag=&nPage=3) (검색일: 2024.09.10.)

일본 총무성 통계국 자료(2023.09.17.)

<https://www.stat.go.jp/data/topics/topi1380.html> (검색일: 2024.09.10.)

일본 후생노동성 인구동태 통계자료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jinkou/geppo/nengai23/d1/gaikyouR5.pdf> (검색일: 2024.09.10.)

머서(Mercer)·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CFA) 발표 자료(2023.10.23.)

<https://www.mercer.com/ja-jp/about/newsroom/global-pension-index/> (검색일: 2024.09.10.)

第16回日本ミステリー文学大賞新人賞選評(2013)

[https://kobun.or.jp/mystery\\_new/prize16/](https://kobun.or.jp/mystery_new/prize16/) (검색일: 2024.09.10.)

[https://www.youtube.com/watch?v=\\_6O7ByHaSuw](https://www.youtube.com/watch?v=_6O7ByHaSuw) (검색일: 2024.09.10.)

❖ ABSTRACT

Between the Rebellion and Inclusion  
: Focusing on *Lost Care* and *70-year-old death bill, passed*

Lee, Seungjin  
Konkuk University

The world portrayed by Miu Kakiya's *70-year-old death bill, passed*, released consecutively in 2012 and 2013, and Aki Hamanaka's *Lost Care* is riddled with contradictions stemming from a super-aged society. The eruption of such extreme viewpoints in Japanese culture highlights severe issues, including deformed demographic structures, income inequality, and generational along with class conflicts within Japan. The former eerily suggests that everyone should die at 70, leading us into a profound exploration of life's challenges through "inclusion," whereas the latter presents a consistent portrayal of a grim and provocative scenario where the methods of inclusion may in fact be "destructive."

Keywords: *Lost care, 70-year-old death bill, passed*, super-aged society, loathing for old age

■ 논문투고일 : 2024. 09. 10

■ 심사완료일 : 2024. 10. 02

■ 게재확정일 : 2024. 10. 11

